
2020년 제3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7. 31. ~ 8. 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7. 31.	시청률	0.019

【총 평】

‘단박톡’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여파! 지금 북한은?!”을, ‘북마크TV’는 “코로나19 사태 속, 북한이 강조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은?”을 방송하였다. ‘단박톡’은 2016년부터 강력하게 이어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고난의 행군 때 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올바른 돌파구는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북제재’관련한 기본정보 제공과 대북제재 맥락을 제대로 짚어준 점은 매우 의미 있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위한 수출, 수입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유류 수출이외에 모든 부분을 수출, 수입 금지 시켜 북한을 경제적 고립화시키는 제재 내용을 짚어주는 시간이었고 북한의 남다른 어려운 경제사정의 원인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른 북한 경제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위한 돌파구까지 모색해봤다. 단박톡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까지 살펴보고, 북마크TV는 통학배를 이용해 등교하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코로나19이후 달라진 학교 내부의 여러 가지 풍경을 함께 소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제재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그 징표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업의 세차레 연기, 전시 식량 창고 개방 소식 등을 제시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제재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최근 북한의 입장과 북한을 둘러싼 각 나라들의 외교적 노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특히 ‘대북제재’설명 부분에서 2018년 남북통일 농구팀 평양 방문 때 국적기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국적기와 군수송기 이용 차이,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은 미국 기술 10% 포함한 모든 전자 기기, 지자체 관광객 보조금 지급이 문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엇인지 등, 상상 이상의 구체적인 대북제재의 예를 들어 설명한 점이 매우 돋보였다.

최근 일어난 북한 탈북자의 월북 사건을 다루는 북한의 속내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북마크TV는 북한중앙TV의 “사랑의 통학길을 따라”를 소개했는데, 커다란 내륙 호수를 낀 북한 지역의 학생들이 배를 이용해 통학을 하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학교 풍경을 다루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에 열의를 쏟는 북한의 모습이 잘 의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방역 지침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게 생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3D 수업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7. 31.	시청률	0.001

【총 평】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린뉴딜’에 대해 단순하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 이미 오래 전에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선회한 유럽의 사례를 다각도로 살피면서 그린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이 무엇인지를 적극 알리고 그린 뉴딜의 성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구성 및 내용】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환경문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지난 7월 14일 발표되었다. 탄소의존경제에서 그린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시작부분에서 전기차의 미래가 가져올 ‘내연기관의 종말’을 화두로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전기차의 성장전망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유럽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모델의 성장이 멈출 것이며 전기차 모델이 성장할 것이라도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인지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로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1300조 규모의 ‘그린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그린에너지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물리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관심을 가지고 들을 만한 내용이 많았다.

미 의회의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 국경에서 제품이 들어올 때 수입제품에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하원에서는 통과되었다. 향후 미국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 등 거대 기업에서도 납품 시 100%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라는 발표를 한 상태이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훌륭하다. 기술적, 시장 잠재량을 봤을 때,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이 1,800GW로 원전 1,800개 용량의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 ‘2050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8. 2.	시청률	0.005

【총 평】

총체적인 부동산 대책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대책을 말하다 1부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는 갭투자와 다주택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갭투자의 실태와 전세대출의 부작용 등 지난 12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주로 다루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두루 살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변경안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그 취지와 기대효과를 위주로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7.10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정확하게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아파트 갭 투자의 실상과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렸다.

갭 투자의 패해는 물론, 패닉 바잉(공황구매) 공포에 의한 주택 구매 현상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처리해 이해하기 쉬웠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의 행태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편에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보기 좋았다.

부동산의 투기바람은 일명 '묻지마 갭투자 원정대'라고 하는 아파트 투자 동호회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약간의 돈을 들여 집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시 팔고하는 방법으로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의 상승 원인을 초저금리와 주택임대업자와 다주택 소유자들의 갭 투자로 진단했다. 갭 투자가 휩쓸고 지나간 청주시 오창읍 사례를 취재하면서 전국의 갭투자 원정대가 어떤 식으로 투기를 하는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어 흥미롭기도 하고 경각심을 주기도 했다. 실제 갭투자가 성행했던 청주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찾아 지난 6개월간의 갭투자 실태를 취재해서 더욱 신빙성이 있었다. 갭투자를 위해 전세대출을 악용한다는 인터뷰와 함께 그 실체를 파악한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인상폭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실제 주택 구매 사례를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 수치로 비교했다. 또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의 사정을 실제로 들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자연스럽고 강조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8. 2.	시청률	0.088

【총 평】

‘두 남자의 매운맛 농사 고추냉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서 귀농한지 3년째로 고추냉이 농사를 짓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끊임없는 고추냉이 연구와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추냉이 재배법을 이룩하고 점차 수익을 내고 성과를 내고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작물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모습이 잘 전달되었고, 단순히 재배하기 편한 흔한 작물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줄 수 있겠다.

연간 매출과 앞으로 영농 목표를 제시한 점도 영농의 미래를 밝게 해주었고, 친구끼리 티격태격하며 농사를 짓는 모습과 함께 기러기 아빠가 가족을 만나 망중한을 즐기는 전원생활을 묘사해 귀농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서는 티격태격하며 고추냉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3년째인 두 남자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 평창군은 평균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이 짧고 시원한 것이 특징으로 고추냉이 농사에 적합하여 두 남자의 귀농이 이뤄졌다.

고추냉이 재배를 위해 일본, 캐나다 등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한국땅에 적합한 농법을 배워 적용하고 있다. 고추냉이는 정확하게 뿌리는 아니고 뿌리줄기라고 하는 근경 부분을 갈아서 먹는 것이며 잎과 줄기도 활용한다. 직접 재배한 고추냉이는 시중 화학적으로 맛을 낸 고추냉이 상품에 비해 단 맛이 있고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그간 이미 다른 흔한 작물로 귀농을 시작한다면 승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추냉이를 선택했다. 직접 설계한 식물공장에서 고추냉이 재배연구를 통해 조광에 있어 다양한 램프, 광량, 광질을 찾아냈고 향후 해당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귀농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고추냉이 재배 연구를 해왔다. 그간 연구로 소진한 고추냉이만 8~10만 개 정도가 된다. 고추냉이를 다루는 진지한 모습 그리고 산에서 용천수를 끌어와 재배에 이용할 정도의 주도면밀함에서 두 남자의 열의와 집념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수익의 안정화를 위해 딸기도 재배하고 있다. 딸기 재배를 위해서도 연구를 거듭하여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직장생활의 성취감보다 귀농 이후의 성취감이 더욱 좋으며 귀농 귀촌을 결심한다면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보다 적절한 재배 작물을 선택하는 것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인생의 매운맛을 본 사람, 인생의 쓴맛도 차근차근 맞춰 간다면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마무리가 깊은 여운을 남겼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하는 사업, 평창과 강원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서 두 남자의 깊은 속내를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8. 4.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와 장마로 겹친 8월의 더위를 '자연'이라는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농부의 열정... '평창 미탄' 체험 관광지로 만들다", "서울시민 대상 귀농·귀촌 체험 교육 호응" 등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장년층 관련 뉴스는 '도전'이라는 두 글자에도 안쓰러운 감정을 스며들게 하는데 시청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 "'이야기 할머니' '좁은 문...경쟁률 평균 7:1"은 인성교육과 자긍심을 외에도 정책효과를 잘 드러낸 아이템이었다. 1300명 선발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긴장감을 조성했지만, 지원자 얼굴에 사랑이 깃들어 있어 시청자를 흐뭇하게 했다. 또, "청년 농부의 열정... '평창 미탄' 체험 관광지로 만들다"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강원도 평창군 고원지대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소개하였다. 청년 여섯 명은 평창 고원지대에서 미탄 소품이라는 체험 관광을 만들어 천혜자원과 특산물을 개발 운영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목장과 고원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체험관광 소식은 청년들의 고향 사랑을 엿볼 수 있었고, 관광객 스스로 환경문제까지 생각하게 한 의미 있고 생생한 현장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청년 농부의 열정... '평창 미탄' 체험 관광지로 만들다
평창 미탄 지역을 체험관광지로 탈바꿈시킨 청년 6인의 활약상을 취재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평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의의가 있었다.
- '이야기 할머니' 좁은 문...경쟁률 평균 7대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 교육 과정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야기 할머니'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고 좋은 근무환경과 보수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관심있는 시청자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다.
- 서울시민 대상 귀농·귀촌 체험 교육
영암 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 귀촌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귀촌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다. '귀촌하겠다'고 먼저 집부터 지으면 안된다', '전원 생활은 꿈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
- 환경 관심 높인 '플라스틱의 두 얼굴' 전시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소개하고 플라스틱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시된 사진을 최대한 부각시켜 플라스틱의 폐해를 잘 보여주었다.
-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더위와 코로나19, 이겨내요!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절인 때문일 것이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8. 4.	시청률	0.002

【총 평】

<특특사이다경제> 300회는 '6월 생산, 소비, 투자 반등'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을 분석해 흡인력과 주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유익한 정보제공과 정책알림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경제 선방'에 대해 긍정적 평가속에 객관적인 시선을 보강해, 6월 경제지표 의미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게 도왔다. 특히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이 부각되며 향후 성장률에 있어서도 OECD 국가 중 수위를 다룰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일본의 금융보복과 관련해서도 막연한 우려를 해소해주며 일본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해준 점은 다른 의미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S&News>는 코로나 K-푸드 전성시대, 휴가철 반려동물 문제 등 시의성과 트렌드에 맞는 소재로 공감도와 흡인력을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분석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었다. 또, 경제성장률이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중이며, 아직 정상화는 아니라는 냉철한 분석이 신뢰감을 제고했다.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각국이 4월, 5월 중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반등이 이뤄진 것이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특히 전산업생산의 반등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비대면 산업, 디지털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월 대비 생산 증가하였다.

특히, 1분기에 비해 2분기 소비지표가 개선되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투자에 있어서는 전월대비,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는데 설비투자의 경우 최근 2분기에 재고투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향후 주문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나와 3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할 것이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되어 외환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며,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본의 금융보복이 예고되는 가운데 크게 국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성장률 정도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하락정도가 가장 양호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News>는 코로나19에 의한 뜻밖의 수혜로 제과, 라면 생산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K-푸드 전성시대, 휴가철에 유기견이 늘어나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소실된 옛 사찰 "황룡사를 디지털로 복원해 모바일 앱으로 선보인다"는 소식을 전했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8. 6.	시청률	0.001

【총 평】

수소산업을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수소모빌리티의 모든 것!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와 ‘제12차 목요대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를 소개했다.

수소경제의 필요성,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주요 계획이 다뤄졌고,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국가적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과 정책정보 제공, 해결방안 제시가 뛰어났다.

특히, 100년 후 대한민국 신산업으로 육성돼야할 수소모빌리티 산업을 제1회 모빌리티쇼 행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부 계획과 효과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제1회 수소 모빌리티쇼’와 ‘제12차 목요대화’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과제인 수소산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슈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시의성에 맞게 소개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수소산업의 수소생산, 저장, 운송, 모빌리티까지의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가 마련되었다. 세계최초, 국내최대 규모의 수소모빌리티 전시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총리가 전시회에 참가해서 수소산업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그간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인사말을 전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표적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차 목요대화를 소개했다. 첨단재생의료, 바이오의약 현황과 전망에서 시험관 아기는 1978년 영국에서 처음 태어나게 되었고 윤리적인 논란이 많았지만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제시했다. 또, 줄기세포는 치료복제 기술의 중요한 요소로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 환자에게 이식시키면 이식면역거부반응이 없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장의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많이 분포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하려면 산업생태계 구축 및 제조기술 혁신, 제조인프라 혁신,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00년 후를 내다볼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신산업은 수소산업”이라는 이야기와 “한국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수소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마무리 이야기가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8. 6.	시청률	0.000

【총 평】

“휘청이는 안전! 개인용 이동수단”은 개인용 이동수단은 대중화로 인해 잦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전동 킥보드·전동 휠의 위험 사례와 생활 안전사고를 통해 충전시 화재 위험 예방법,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 운행 수칙 등을 소개했다.

최근 사용이 편리한 이유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의 안전수칙과 점검 부분을 집중 조명했다. 사용자의 안전 보호 장치가 없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편리한 만큼 차와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고 인명피해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5년에 14건에서 시작해 작년에는 290건으로,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사고도 많은데, 주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이는 규격에 맞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타사 충전기를 사용해 생기는 사고다.

【구성 및 내용】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의 주요 유형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수칙을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제공했다. 또, 전동 킥보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빈도수와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운행 계도 현장을 취재하고 개선된 도로교통법상 킥보드 운행시 준수 사항을 소개하고 실제 전동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례자를 만나 운행 시간을 체크하고 아찔했던 사고 경험담도 들어보면서 안전 수칙과 주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전동 킥보드이다보니 전기적 요인에 인한 화재 사고가 많았는데 다른 화재 사고에 비해 다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보편화된 화재 사고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출입구 안팎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수롭지 않게 하는 작은 행동이 사고시 얼마나 큰 위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충전기 사용은 타사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 사용의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되어 경각심이 들게 했다.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 예방법 관련 실제 운행 계도 단속을 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통해 얼마나 킥보드 운행에 부주의하며 제대로 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지가 확인하게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과 주차존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마무리부분에서 대리운전을 위해 전동휠을 자주 사용하는 한 시민의 일상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일상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작위적인 느낌이 덜했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편리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가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었다. 또, 실제로 당한 사고 경험담도 소개가 되면서 안전 수칙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강조 되었다.